

## 컴퓨터피아 여는 '시스템代父'

시스템 공학센터 성기수 소장

국민일보. 90.10.26 『情報사회 선구자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시스템공학센터 성기수 소장(56)은 60년대 초반 전산계에 투신한 이래 23년 동안 시스템공학센터를 지키며 국내정보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성 소장이 컴퓨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부터 27년전. 美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우주항공학)를 취득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63년 귀국, 대학강사로 활약하던 성 소장은 67년 KIST와 손을 잡고 시스템공학센터의 전신인 전자계산연구실을 발족했다.

『그 당시 전산실을 만드는 것은 예산과 인력면에서 무리였지요. 그러나 컴퓨터의 보급확산에 대비하고 공동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최초인 전산실을 만들었습니다.』

성 소장은 당시 1인 3역을 해야 했으나 차차 인원이 불어나 69년 컴퓨터(CDC 3300)가동 때는 2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산실은 업무증가에 따라 82년 전산개발센터로 승격되고 84년에는 시스템공학센터로 개칭되면서 조직도 확대개편됐다. 이 센터의 현 조직체제는 전산개발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부, 전산운영부, 기타 행정지원 파트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은 행정요원을 포함, 4백 40여명에 이른다.

『이 센터는 60년대 태동기, 70년대 성장기, 80년대 활동기를 거쳐 90년대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90년대에는 독립연구소로서의 분리도 추진될 것입니다.』

시스템공학센터는 KIST가 있는 홍릉단지에서 5월 대덕으로 이전하고 홍릉에는 서울 분소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소장은 토요일과 월요일만 서울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대덕에서 지낸다. 시스템공학센터를 거쳐 사회로 진출한 사람은 6백여명으로 모두 정보산업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구지회 가인시스템 사장,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안문석 고려대 교수, 오길록 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기술연구단장, 이기식 대우증권상무,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이윤기 엘렉스컴퓨터 사장, 전주식 서울대 교수, 황규복 한국여행정보 사장 등

이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부설기관인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1만명을 넘는다.

성 소장이 컴퓨터를 실생활에 응용한 첫 케이스는 69년 프린터에 한글모아쓰기 기능을 부여한 「한글라인프린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다. 그뒤 지금까지 과학기술 데이터통신망 구축(70년~82년), 사설전자시스템개발(74년~77년), 원격탐사기술개발(79년~88년) 사우디데이터뱅크개발(81년~88년), 워드프로세서개발(82년~83년),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 전산시스템개발(82년~88년), 한·일, 일·한 번역시스템개발(83년~86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시스템개발(86년~89년) 등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지문인식시스템, 차량번호 자동차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동안 전산분야에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로 88서울올림픽 전산운용시스템(GIONS)개발과 슈퍼컴퓨터 크레이II 도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 소장은 『앞으로 취약부문인 대학과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보과학기술계 종사자들도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4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성 소장은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공대 항공학과에 입학,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하버드대에 선발돼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남1녀의 자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전산학과 기초학문인 물리와 수학을 전공하고 있다.